

## 조선왕조실록의 영역과 국제화

김범(국사편찬위원

회)

### 1. 필요성과 목표

학문을 이루는 가장 값은 두 줄기는 탐구와 교류일 것이다. 유사 이래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집적된 성과를 던고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탐구라면, 교류는 그렇게 얻은 소중한 열매를 널리 나누는 것이다. 두 일은 상보적이다. 수확한 탐구의 결실은 교류의 필요성을 높이고, 교류해 전파된 지식의 씨앗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탐구를 촉발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식의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 지식에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이 직접 오가기도 했고 그 지식을 담은 문헌이 전파되기도 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좀더 일반적인 방식은 뒤쪽이었다. 인간의 지식이 기록·보존·전달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문자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자를 이용한 지식의 교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오는 장벽은 언어의 차이이다. 문자의 형태와 발음과 사용방식과 의미,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장벽을 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한 지식의 교류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정의 하나였다. 그 과정이 바로 번역이다.

어떤 두 언어, 이를테면 한국어와 영어는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소통된다. 그러나 몇 세기 전 'Society'나 'Philosophy'라는 단어와 처음 마주친 동아시아인의 느낌은 어땠을까? 그것이 '사회'나 '철학'으로 전환되기까지 거쳐야 했던 과정은 캄캄한 미

지의 동굴을 헤치고 빛을 찾아 나오는 지난한 모험과 견줄만한 지적 모색과 실패와 조정과 성취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이뤄진 □성서□ 번역, 그리스 고전의 아랍어 번역, 인도 불경의 한역(漢譯), 근대 일본의 란가쿠(蘭學)가 수행한 서양어 번역 등은 그런 노력의 빛나는 진경(珍景)들이다.

이런 위대한 업적들과 견주기는 어렵지만, 오늘 소개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도 그런 지식의 교류와 소통의 노력을 잇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널리 알 듯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은 한국사를 대표하는 중요하고 방대한 사료 가운데 하나다. 실록의 가치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공인되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권에서만 주로 이용되었던 실록을 가장 대표적인 국제어인 영어로 번역해 공개함으로써 활용의 범위를 크게 넓히려는 시도다. 한국학 연구의 지평과 수준도 이 사업의 진행과 함께 상당히 확대되고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요 한국학 용어의 영문 표기를 마련해 표준화하는 것도 이 일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 2. 계획과 진행 과정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여 년 동안 약 2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주요한 사료와 연구성과를 영역해 보급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업의 이런 기간과 예산은 다른 사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시간표는 크게 두 단계로 짜여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에서는 □세종실록□의 편년 기사를 모두 번역하고(□세종실록□에만 있는 특수한 기사인 오례·지리지·칠정산은 제외) 2023년부터 시작할 2단계에서는 나머지 왕대 실록에

서 주요 기사를 선별해 번역할 계획이다(종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은 1단계에 75억 원, 2단계에 1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세종실록□을 완역하지만 2단계에서는 나머지 실록을 선역하기로 한 방침은 조선시대, 나아가 한국사 전체에서 세종의 시대가 지니는 의미와 무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모든 왕대의 실록을 번역하는 것은 기간과 예산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 사업은 번역→교열→감수→공개의 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원문을 충실하고 정확한 영어로 번역한 뒤 교열과 감수에서 어색한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아 마무리한다. 그렇게 마련된 완성본은 해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부분 또는 전체를 책자로 간행해 보급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번역의 수준은 영어권 국가의 대학생 이상이면 한국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잡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미 간행된 영역서들의 체재를 참고해 인명·서명·지명 등의 한자 표기, 각주, 색인 등을 첨부해 영어권 독자들이 흥미롭고 순조롭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번역은 올해 세종 8년 3월 기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관직·인명·지명·서명 등의 영문 표기에 관련된 기초작업은 그동안 축적한 5만 여 건의 자료를 다시 검토해 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3. 과제와 전망

문학 번역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학술 번역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자 가장 어려운 난관은 개념어를 합리적으로 번역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첫머리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도착어 사용자에게 낯선 제도와 인명과 지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황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 전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테면 "세종이 의정부·육조의 대신들과 공법의 시행을 논의했다"는 문장은 번역하기에 그리 어려운 구조가 아니다. 번역의 관건과 난관은 이런 단순한 구조를 이루는 단어들, 곧 '세종·의정부·육조·대신·공법'을 표현하는 번역어를 만드는 것이다.

실록은 이런 낯선 개념어와 그 개념어들로 서술된 낯선 상황의 바다다. 거기에는 일정한 수준의 한국사 교육을 받은 현대 한국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그러니 해외 독자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개념어의 영문 번역은 해외 한국학 연구의 발전과 이 사업의 수행으로 많이 진척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유념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력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번역어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준 높은 작업자를 위촉하는 것도 핵심적 과제다. 작업의 특성상 이 사업에는 영어·한문·한국사 모두에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국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석·박사 이상의 전문가 25명을 위촉해 번역·교열·감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좀더 숙련되고 수준 높은 인력을 발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다. 시작한 지 5년째 접어든 이 사업은 정확한 영문 용어의 마련과

적용, 작업 공정의 효율화, 수준 높은 전문가의 확보와 안정적 위촉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자료와 경험을 축적했으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현재의 지표를 정확히 인식해 앞으로 좀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경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